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은행권, 스트레스테스트 공개로 자본보강 자금 필요

- 스트레스테스트의 7월말 공개가 확정된 가운데 자본적정성 기준에 미달하는 은행을 중심으로 자본보강을 위한 300억유로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.
 - 남유럽발 재정위기 이후 유럽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은행의 스트레스테스트 공개 합의 이후 스트레스테스트는 예정보다 일주일 연기된 7월 23일에 공개되기로 결정됨.
 -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유로지역 정부채권 규모가 공개되며, 대상은 당초 26개 은행에서 100여개 은행으로 확대될 예정임.
 - 작년까지는 자본적정성 기준으로 4%의 Tier1 자본비율이 적용되었으나,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같이 6%로 상향 조정되어 적용됨.
 - 자본적정성 기준에 미달하는 은행은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자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.
 - 8개 비민영 지역기업은행들의 자본적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독일은 은행구제기금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짐.
 - 유동성 부족 사태에 대비하고 자본보강을 위해 300억유로(45조원)의 자금이 필요할 전망이다며 낙관적 시나리오가 적용되더라도 이들 자금 규모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.
- 이탈리아의 Monte dei Paschi, Banca Popolare, 스페인의 Banco Popular, 그리스, 포르투갈, 아일랜드 등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의 은행이 자본적정성 기준에 탈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.
 - 자본보강이 예상되는 은행들은 주로 비민영은행들로서 약 200억유로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 - 특히 우려되는 국가는 스페인으로 비민영저축은행(cajas)들이 예상을 상회하는 자금을 요청할 경우 스페인정부의 부채상승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.
 - 스페인은 이미 120억유로(18조원)의 구제금융을 은행권에 투입했으며, 30억유로(5조원)의 추가 구제금융 투입을 예상하고 있음.

(Financial Times 7/1)